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정현 · 최혜정[†]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Factor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College Life Stress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ung-Hyun Park · Hye-Jung Choi[†]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is to prepare measures to effectively improve college life adaptation by identifying relevance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college life stres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375 dental hygiene students attending some local universities in Gyeonggi-do were sampled for conven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uperiority-dominance tendencies were higher in first and third graders, in groups with grades above 4.0 and groups with lower subjective economic levels. And the stress of college life was high for second graders and students with lower grades than 2.0. Second,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factors, governance-dominance, independence-responsibility, sympathy-acceptance, sociable-friendliness, and ostentation-intoxication of interpersonal tendency factors had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college life adaptation, rebellion-distrust and college life stress had inverse relationship. Thir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were in the order of stress in college life, first grade, sociable-friendliness, second grade, rebellion-distrust.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college life adaptation, counseling and practical medi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to effectively manage and control the negativity and positivity implied b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llege life stress.

Key words: College life adaptation, College life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접수일 : 2021년 08월 30일, 수정일 : 2021년 10월 07일, 채택일 : 2021년 10월 08일

교신저자 : 최혜정(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

Tel: 053-320-1358, Fax: 053-320-1340, E-mail: chj8745@dhc.ac.kr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자아 정체성 확립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이현주와 김혜경, 2015). 특히 고등학생 시기까지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생활방식을 해오다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율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가족과 또래 위주로 형성되었던 대인관계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된다(김진희, 2016). 그리고 학점 이수,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학자금 마련 등 대학의 낯선 환경에서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부담을 느끼며 대학생활적응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유경희, 2018). 이러한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함께 느끼고 있는 대학생 시기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하태희, 2019).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들의 적응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설환과 손정락, 2018).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은 처음관계 맺기, 권리 주장,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대인관계능력과 가족, 친구,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송진열, 2017).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개인의 요구를 균형 있게 맞추고, 개인의 요구가 실현 가능 하도록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박진아와 이은경, 2011). 그리고 대학생들은 친구, 동료, 교수, 가족 등 다양한 대인관계 변화와 미래 사회인으로 준비를 위해 능동적 상호작용과 효과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대학생활부적응은 학업 수행 능력저하 및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야기하고, 진로선택

과 사회적 적응역량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사회인으로 준비에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또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 및 학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국 중도탈락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의 경쟁력과 대학의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대학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전원희 등, 2015). 그러므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적응은 대인관계와 생활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김화선 등, 2019),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적응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이현주와 김혜경, 2015). 그리고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클수록 공격적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하태희, 2019).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공별 대상자를 다양하게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큰 연관성이 보이는 대인관계성향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성향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9년 4월 3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 경기 일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6 program을 이용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effect size=0.15, 유의수준 $\alpha=0.05$, power $1-\beta=0.95$ 로 설정 후 필요한 최소 107명이었으나, 최대

한의 표본오차와 표본의 치우침 등을 감안하여 총 37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연구자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여 연구윤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학년(1~3학년), 출신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성화고), 학점(2.0 미만, 2.0~3.0 미만, 3.0~4.0미만, 4.0 이상), 주관적 경제적 수준(상, 중, 하)으로 구분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성향은 Leary(1957)의 대인관계성향 행동모형과 Krech et. al.(1962)이 밝힌 대인적 반응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5)가 재구성한 '대인관계 성향검사' 측정도구(84문항)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한 설문지로, 교육학 및 보건학 전공 치위생과 교수의 검토를 거쳐 내적 타당도를 높였고 대학생 10명의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성향을 대인관계 상황에서 맡은 역할 성향, 사회적 관계 성향, 표현 성향의 3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로 나누어져 7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합산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대인관계 성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안범희(198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0.689$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650이었다.

3)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전경구 등(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8가지 영역에 총 50개 문항)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한 설문지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학 및 보건학 전공 치위생과 교수의 검토를 거쳐 내적 타당도를 높였고 대학생 10명의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질문은 역채점하였다.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한 후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심함을 의미하며, 전경구 등(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0.97$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719이었다.

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yrik(1984)이 개발한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참조하여 보완한 이윤정(1999)의 25문항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한 설문지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학 및 보건학 전공 치위생과 교수의 검토를 거쳐 내적 타당도를 높였고 대학생 10명의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로 평정하고 부정적인 질문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윤정(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4$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765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고, Tukey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인관계성향,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인관계성향의 하위 요인 중 지배-우월 성향은 1학년과 3학년에서($p<.01$), 경쟁-공격적 성향에서는 1학년에서($p<.05$), 과시-도취 성향은 일반고 출신($p<.05$)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지배-우월 성향은 학점 4.0 이상인 그룹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p<.01$),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지배-우월 성향이 높았으며($p<.01$), 사후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룹은 중간 및 높은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학년, 학교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2학년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p<.01$), 학교성적이 2.0미만으로 낮은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p<.05$),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1$).

3.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7가지)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 중 지배-우월($r=.232, p<.001$), 독립-책임($r=.168, p<.001$), 동정-수용($r=.117, p<.05$), 사교-우호($r=.292, p<.001$), 과시-도취($r=.183, p<.001$), 반항-불신($r=-.230, p<.001$)과 대인관계성향 평균($r=.234, p<.001$), 대학생활 스트레스($r=-.641, p<.001$)는 대학생활적응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우월, 독립-책임,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는 대학생활적응과 정(+)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는 해당 성향이 높을수록 연구대상자가 대학생활적응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항-불신,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과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는 반항-불신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4.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학년, 출신 고등학교 유형, 성적, 경제적 수준을 가변수 처리한 후 독립변수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F=30.276, p<.001$), 최종 모형 설명력은 57.8%이며, 수정된 설명력은 55.9%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beta=-.549$), 1학년($\beta=-.228$), 반항-불신($\beta=-.220$), 2학년($\beta=-.215$), 사교-우호($\beta=.172$) 등 순이었다. 특히 성적이 4.0이상일수록, 사교-우호적 성향인 경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 반항-불신, 경쟁-공격, 성적이 2.0미만으로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70

Division	n	Role orientation						Social relationship						Expression					
		Superiority-Dominance		Independence-Responsibility		Sympathy-Acceptance		Sociable-Friendliness		Competitive-Aggressive		Ostentation-Intoxication		Rebellion-Distrust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1 st grade	145	3.00±.56 ^b		3.00±.57 ^a		3.14±.67 ^a		3.47±.50 ^a		3.31±.66 ^a		2.95±.60 ^a		2.50±.452 ^a					
Grade 2 nd grade	102	2.80±.60 ^a	5.085 ^{**}	2.78±.59 ^a	2.614	3.09±.1.63 ^a	.360	3.43±.80 ^a	.087	3.10±.60 ^a	3.331 [*]	2.95±.1.14 ^a	.304	2.54±.39 ^a	2.280				
3 rd grade	123	3.00±.49 ^b		2.96±.1.11 ^a		3.20±.77 ^a		3.46±.54 ^a		3.29±.68 ^a		3.02±.76 ^a		2.43±.46 ^a					
High school type																			
General	244	2.94±.53	1.820	2.95±.88	.006	3.23±.1.17	.025	3.45±.51	.432	3.23±.65	.452	3.01±.94		2.46±.45	3.845				
Specialized	126	2.96±.61		2.91±.64		2.99±.75		3.48±.77		3.29±.68		2.91±.57		2.53±.39					
Score																			
<2.0	19	2.86±.57		3.02±.46		3.08±.75		3.57±.68		3.11±.59		2.74±.65		2.56±.511					
≥2.0-2.9	130	2.85±.56	3.235 [*]	2.93±.1.12	.096	3.30±.1.49	1.611	3.47±.76	.639	3.25±.69	1.373	2.94±.69	.826	2.43±.43	1.511				
≥3.0-3.9	189	2.98±.53		2.92±.58		3.09±.67		3.45±.41		3.22±.66		3.02±.95		2.50±.50					
>4.0	32	3.13±.62		2.96±.53		2.91±.78		3.35±.41		3.47±.59		2.95±.64		2.58±.50					
Economic level																			
Low	16	3.31±.64 ^b		3.20±.57		3.00±.75		3.69±.60		3.56±.83 ^a		2.98±.83		2.48±.73					
Moderate	289	2.95±.54 ^a	4.620 ^{**}	2.94±.84	1.413	3.16±.1.13	.203	3.45±.63	1.321	3.24±.64 ^b	1.936	2.98±.87	.126	2.48±.41	.099				
High	65	2.84±.54 ^a		2.83±.67		3.12±.68		3.41±.52		3.20±.69 ^c		2.92±.62		2.50±.42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one-way ANOVA test at $\alpha=.05$

* $p<.05$, ** $p<.01$

〈Table 2〉 Differences in College Life Stres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llege life stress		College Life Adaptation	
			M±SD	T/F	M±SD	T/F
Grade	1 st grade	145	3.26±.54 ^a		3.08±.51 ^a	
	2 nd grade	102	3.48±.49 ^b	5.074 ^{**}	2.93±.57 ^a	11.060 ^{***}
	3 rd grade	123	3.35±.55 ^{ab}		3.26±.54 ^b	
High school type	General	244	3.30±.53	.324	3.15±.55	.088
	Specialized	126	3.44±.53		2.99±.54	
Score	<2.0	19	3.64±.56 ^b	2.988 [*]	2.71±.68 ^a	7.283 ^{***}
	≥2.0-2.9	130	3.39±.56 ^{ab}		3.01±.53 ^{ab}	
	≥3.0-3.9	189	3.31±.52 ^a		3.15±.54 ^{bc}	
	>4.0	32	3.35±.54 ^a		3.10±.471 ^c	
Economic level	Low	16	3.05±.56 ^a	8.380 ^{***}	3.53±.59 ^b	7.760 ^{***}
	Moderate	289	3.32±.53 ^{ab}		3.11±.53 ^a	
	High	65	3.56±.48 ^b		2.94±.59 ^a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one-way ANOVA test at $\alpha=.05$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College Life Stres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Variable	Superiority-Dominance	Independence-Responsibility	Sympathy-Acceptance	Sociable-Friendliness	Competitive-Aggressive	Ostentation-Intoxication	Rebellion-Distrust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ollege Life Stress	College Life Adaptation
Superiority-Dominance	1									
Independence-Responsibility	.266 ^{***}	1								
Sympathy-Acceptance	.004	.058	1							
Sociable-Friendliness	.199 ^{***}	.137 ^{**}	.190 ^{***}	1						
Competitive-Aggressive	.233 ^{***}	.116 [*]	.090	.099	1					
Ostentation-Intoxication	.215 ^{***}	.238 ^{***}	.087	.234 ^{***}	.100	1				

Variable	Superiority- Dominance	Independence- Responsibility	Sympathy- Acceptance	Sociable- Friendliness	Competitive- Aggressive	Ostentation- Intoxication	Rebellion- Distrust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College Life Stress	College Life Adaptation
Rebellion- Distrust	.200***	.225***	.007	.004	.247***	.289***	1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506***	.565***	.521***	.498***	.474***	.605***	.438***	1		
College Life Stress	-.124*	-.107*	-.139**	-.136**	-.036	-.134**	.179***	-.170***	1	
College Life Adaptation	.232***	.168***	.117*	.292***	-.017	.183***	-.230***	.234***	-.641**	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t $\alpha=.01$

* $p<.05$, ** $p<.01$, *** $p<.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Adaptation

Division	B	SE	β	t	p^*
(Constant)	4.543	.231		19.675	<0.001
Grade(1 st grade)	-.228	.047	-.201	-4.853	<0.001
Grade(2 nd grade)	-.215	.052	-.173	-4.090	<0.001
High school type(specialized)	-.002	.043	-.002	-.057	.9545
Score(<2.0)	-.121	.092	-.048	-1.303	.010
Score(≥ 2.0 -2.9)	.114	.043	.103	2.659	.008
Score(>4.0)	.348	.076	.177	4.608	.001
Economic level(Low)	.143	.097	.052	1.467	.146
Economic level(High)	.013	.052	.009	.254	.911
Superiority-dominance	.099	.039	.099	2.554	.011
Independence-responsibility	.061	.026	.088	2.351	.022
Sympathy-acceptance	.009	.019	.017	.457	.645
Dociable-friendliness	.172	.034	.189	5.089	<0.001
Competitive-aggressive	-.069	.031	-.082	-2.209	.026
Ostentation-intoxication	.043	.026	.065	1.675	.091
Rebellion-distrust	-.220	.051	-.171	-4.279	<0.001
College life stress	-.549	.040	-.529	-13.841	<0.001

F=30.276 $p<0.001$, $R^2=0.578$, adjusted $R^2=0.559$

*Dummy Variable: Grade(ref: 3rd grade), High school(ref: General), Score(ref: ≥ 3.0 -3.9), Economic level(ref: Moderate)

*Excluded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tolerance 0.000)

IV. 논의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배-우월 성향은 1학년과 3학년, 학점이 4.0이상인 그룹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경쟁-공격적 성향에서는 1학년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2학년에 비해 1학년과 3학년이 지배-우월 성향이 높은 것은 1학년 시기는 신입생 초기에 새로운 환경 적응과 또래 집단형성 시기로 타인을 탐색하고, 자신의 성향을 강조하면서 지배-우월, 공격 성향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여겨지고, 3학년은 본 연구대상자의 최고 학년으로 전반적인 대학생활과 학과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로 더 지배-우월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별 세부적인 비교분석을 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미련과 남문희(2014)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와 학년은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학년이 대인관계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성미경 등, 2020).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보다 대인관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이미옥 등, 2020) 선행연구들과 대상 집단이 다르지만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차이를 살펴보면, 2학년이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위생과 특성상 3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교육과정은 2학년 때 이수학점 및 전공교과목 비중이 높고, 치과임상현장 실습 및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가지는 복합적인 부담감과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성적이 2.0미만으로 낮은 학생이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대학생활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성적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가 결국 대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남현(201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성향 하위요인 중 지배-우월, 독립-책임, 동정-수용, 사교-우호, 과시-도취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반항-불신,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윤희와 박명숙(2020)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공감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김화선 등(201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대인관계는 정적 상관이 있고,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혀온 결과와 일관된 의미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1학년, 반항-불신, 2학년, 사교-우호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적이 4.0 이상인 경우와 사교-우호적 성향인 경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 반항-불신, 경쟁-공격, 성적이 2.0미만인 경우와 학년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경희(2018)와 정혜운(201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족, 친구, 주요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으로 연계 되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높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조보람과 이정민, 2019).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교적 우호적 성향이 강하고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사회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순혜와 김정원, 2004), 긴장과 공격성은 대학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허남숙과 이유희, 2018).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교-우호적 대인관계 성향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 스트레스나 반항-불신, 경쟁-공격적 대인관계성향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 성향이 부정적이고,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성이 증가시켜 학업 중단, 관계 단절 및 적응 실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조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학 내 학생들의 대학 적응에 대한 고충과 어려움을 증재할 수 있도록 학생심리상담 강화하고, 선후배 멘토링, 전공 및 봉사동아리 등 참여 활동을 확대시키며, 대인관계능력 향상과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물적, 인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안착과 미래의 구강건강증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본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편의표본 추출방법으로 진행되어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지역, 실습, 전공만족도, 동아리 여부 등 다양한 관련 변수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성향 및 대학생활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

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 중 사교-우호적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반항-불신적 성향, 경쟁-공격적 성향,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우호적이고 사교적인 긍정적 대인관계성향을 강화시키고, 타인을 공격하고 불신하며,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정적 대인관계성향과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의 폭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심층상담, 공감교육, 마음챙김 및 또래집단 상담 등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순혜, 김정원(2004).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2), 83-97.
2. 김진희(2016). 대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관계: 자기 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7(1), 81-100.
3. 김화선, 조경아, 노인숙(2019).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영향요인. 인문사회21, 10(3), 1067-1078.
4. 김설환, 손정락(2018).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유연성과 속박감의 매개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8), 331-339.
5. 박진아, 이은경(201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 향. 한국간호행정학회지, 17(3), 267-2011.
6. 성미경, 이유희, 윤정원(2020).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2), 45-51.
 7. 송진열(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2), 335-345.
 8. 안범희(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9. 이미옥, 이지영, 정미경(2016).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성격 변인 간의 관계 연구.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4(1), 41-47.
 10. 이미련, 남문희(201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관련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509-517.
 11. 유경희(201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3), 269-278.
 12. 이현주, 김혜정(2015). 대학생의 SNS 중독 및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6), 3944-3954.
 13. 오윤희, 박명숙(2020).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8), 331-341.
 14. 이윤정(1999).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계획[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5.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개발 연구. 2000 건강심리학 회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70-88.
 16.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2015).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지, 15(3), 219-228.
 17. 정혜윤(2016).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융복합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259-268.
 18. 조보람, 이정민(2019). 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4), 1-11.
 19. 차남현(2016).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2), 124-131.
 20. 허남숙, 이유희(2018).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대학생활 만족도와의 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7), 141-147.
 21. 하태희(2019). 일개 도시 대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생활 스트레스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319-326.
 22.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23. Krech, D., Crutchfield, R. S., & Ballachey, E. L.(1962). Individual in society: A textbook of social psychology. McGraw-Hill Book Co., Inc.
 24.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